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Significance of Aryeong of Sillas Ancestor Ritual and the Shrine of the Founder of Silla

**저자
(Authors)** 김선주
Kim Sun-joo

**출처
(Source)** [역사와현실 \(76\)](#), 2010.6, 171-202(32 pages)
[YKSA WA HYNIS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76\)](#), 2010.6, 171-202(3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연구회](#)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69441>

APA Style 김선주 (2010).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현실(76), 171-2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 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0 16:0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김 선 주*

머리말

1. 건국신화에서의 알영 전승과 그 의미
2. 오릉과 알영의 관계
3. 시조묘 제사의 변화와 신궁
맺음말

머리말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와 제사지(祭祀志)는 신라에서 시조묘(始祖廟) 제사가 있었음을 전해준다. 신라본기에는 남해차차웅 3년에 시조묘를 건립했다고 하였다.¹⁾ 제사지에서는 남해왕대 시조혁거세묘를 건립하여 사시(四時)로 제사를 드렸는데, 친매(親妹)인 아로(阿老)로 하여금 제사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였다.²⁾ 소지왕대 신궁이 설립되기 전까지 역대 왕들은 즉위 후 시조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 신라에서 시조묘

* 중앙대학교 강사

대표논저 : 2002 「皇南大塚의 주인공 재검토」 『淸溪史學』 16·17 ; 2003 「墓制를 통해 본 新羅 親族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5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史學研究』 77

1)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條

2)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條

제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조묘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찍 선학들에 의해 주목되었는데 주로 시조묘 제사의 성격이나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³⁾ 시조묘 제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혁거세로 이해하고 있다. 혁거세 뿐 아니라 알영도 함께 제사 지냈다가,⁴⁾ 탈해·성한 등 삼성 족단의 시조들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⁵⁾ 이 역시 혁거세를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또한 혁거세를 곡령(穀靈)적 존재로 이해하여 시조묘의 주신을 곡령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⁶⁾

시조묘의 주신(主神)이 혁거세라는 인식에 현재까지 큰 이견이 없는 이유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의 공식적인 건국신화에서 혁거세를 건국시조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사지의 ‘시조혁거세묘(始祖赫居世廟)’라는 표현은 시조묘가 곧 시조 혁거세의 묘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신라에서 건국시조로 인식했던 인물은 혁거세이고, 시조를 제사지내는 시조묘의 주인공은 당연히 혁거세가 될 수밖에 없다.

3) 邊太燮, 1964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 井上秀雄, 1978 「新羅의 始祖廟」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 辛鍾遠, 1984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 崔在錫, 1986 「新羅의 始祖廟와 神宮의 祭祀-그 政治的·宗政的 意義와 變化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50 ; 崔光植, 1989 「三國의 始祖廟와 그 祭祀」 『大丘史學』 38 ; 나희라, 1990 「新羅初期 王의 性格과 祭祀」 『韓國史論』 23 ; 김두진, 1994 「신라 김알지 신화의 형성과 신궁」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 朴承範, 1997 「新羅의 始祖廟 儀禮」 『史學志』 30, 檀國史學會 ; 채미하, 2003 「신라의 시조묘 제사」 『民俗學研究』 12 ; 金昌錫, 2007 「신라 始祖廟의 성립과 그 祭祀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26

4) 김두진, 1994 위의 논문, 76쪽

5) 姜鍾薰, 1994 「神宮의 設置를 통해 본 麻立干時期的 新羅」, 『韓國古代史論叢』 6, 216쪽

6) 三品彰英, 1973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40~48쪽

그런데 시조묘=혁거세묘라는 등식은 시조묘 이후 등장하는 신궁 제사의 주신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켰다.⁷⁾ 신궁 설치를 전하고 있는 신라본기와 제사지에서 모두 신궁이 시조 탄생한 곳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신궁이 시조와 관련을 가진 곳에 설립되었다면 신궁의 주신 역시 시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시조를 제사지내는 시조묘가 있는데, 왜 새롭게 시조를 제사지내는 신궁을 설립했느냐이다. 또한 신궁 설치 후에도 시조묘 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과연 같은 대상에게 중복해서 제사 지냈을까 하는 의문도 주고 있다. 시조묘의 주신이 혁거세라는 것을 전제로, 신궁의 주신을 시조묘와 차별화하려다 보니 신궁의 주신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

문헌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다면 시조묘와 신궁의 주신 모두 건국 시조로 알려진 혁거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신궁의 주인공에 대해서만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것일까? 신궁 제사의 주신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되는 시조묘 제사의 대상이 과연 기존의 통념대로 혁거세일까? 시조묘 제사의 대상을 달리 본다면 신궁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시조묘가 곧 혁거세묘라는 이해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신라의 건국신화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신라의 건국시조가 묻힌 곳으로 전승되고 있는 오릉이 시조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조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 신궁의 주신에 대해서는 혁거세·김알지·미추왕·내물왕·혁거세와 알영이 함께 배향되었다고 보는 설 등 다양한데 신궁 주신에 대한 연구서는 최광식, 1994 「신라의 신궁제사」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200~205쪽;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82쪽 주48)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8)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條
『三國史記』 卷32, 雜誌1 祭祀條

신궁이 설치된 배경을 검토하면서 시조묘의 성격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시조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시조묘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설치된 신궁이나 오묘제에 대한 이해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건국신화에서의 알영 전승과 그 의미

시조묘의 주신을 혁거세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려 있는 신라의 건국신화이다. 이들 사서에 실려 있는 신라 건국신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혁거세의 탄생에서부터 즉위와 혼인, 통치, 죽음 등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주요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신라의 건국시조는 혁거세이며, 시조묘 제사의 대상은 건국시조인 혁거세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신라 건국신화에서 주인공이 혁거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라의 건국신화에는 시조왕인 혁거세만이 아니라 시조비인 알영, 그리고 혁거세를 추대했다는 육촌장의 탄생담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신라의 건국신화는 혁거세와 알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시조전승을 근간으로 형성되었지만, 그 속에는 다른 많은 부족의 시조전승을 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⁹⁾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조비로 묘사된 알영이다. 6촌장의 경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전승이 있다는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된 반면, 알영의 경우 시조인 혁거세와 같이 독자적인 탄생담도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김두진, 1999 「新羅 建國神話의 神聖族 관념」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259쪽

1-1) 봄 정월에 용이 알영정(闕英井)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어떤 할멈이 보고서 이상히 여겨 거두어 키웠다. 우물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자라면서 덕행과 용모가 뛰어났다. 시조가 이를 듣고서 맞이하여 왕비로 삼으니, 행실이 어질고 안에서 보필을 잘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두 성인(二聖)이라 일컬었다.¹⁰⁾

1-2) 이날 사랑리에 있는 알영정 [또는 아리영정(娥利英井)이라고 함] 가에 계룡(鷄籠)이 나타나서 왼쪽 겨드랑이에서 어린 계집아이를 낳았다. [혹은 용이 나타나서 죽었는데 그 배를 가르고 계집아이를 얻었다고 했다.]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입부리와 같았다. 이에 월성 북쪽에 있는 냇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이 일 때문에 그 내를 발천(撥川)이라고 한다. 남산 서쪽에 궁실을 짓고는 두 명의 신성한 아이를 모셔 길렀다. ... 중략...계집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었다.¹¹⁾

건국시조인 혁거세의 탄생담이 실려 있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시조비인 알영이 알영정에 나타난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탄생담도 함께 전하고 있다. 시조비인 알영이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조비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는 고구려·백제의 건국신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는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의 북방계 건국신화이며, 신라와 가야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천남지녀형(天男地女型)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²⁾

그렇지만 건국신화에서 표현되는 부부나 형제는 실제적 관계라기보다는, 각기 그 인물로 대표되는 집단의 결합에 대한 상징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알영 역시 혁거세로 대표되는 집단과 구별되는 다른 집단을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시조비로 표현된 알영이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

10)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五年條

11) 『三國遺事』 卷1, 紀異2 赫居世王條

12) 이지영, 2000 『고대 건국설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17~18쪽

고 있다는 것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그 만큼 알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알영은 탄생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혁거세와 혼인하여 왕비가 된 뒤에도 뚜렷한 행적이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혁거세가 육부를 순무(巡撫)하는데, 알영이 함께 따라가서 농업과 양잠을 권독(勸督)하여 지리(地利)를 다하게 하였다고 한다.¹³⁾ 농상을 권독하여 지리를 다하게 하는 것은 왕의 상징적 업무이다. 그렇다면 알영이 왕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까?

이와 관련하여 위의 1-1)에서 시조부부인 혁거세와 알영을 ‘이성(二聖)’으로 불렀다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을 함께 이성(二聖)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이 외에도 더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혁거세왕 38년에 마한에 사신을 간 호공이 두 사람을 이성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가리키고 있으며,¹⁴⁾ 다음 대인 남해차차웅 역시 두 사람을 함께 이성으로 지칭하고 있다.¹⁵⁾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기이편과¹⁶⁾ 감통편에도¹⁷⁾ 각각 혁거세와 알영을 함께 이성(二聖)으로 일컫는 표현이 실려 있다.

이는 신라에서 시조비인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이성(二聖)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이성(二聖)이라는 표현은 두 사람이 같은 비중으로 존숭되었음을 보여준다. 알영은 혁거세의 배우자로서 만이 아니라, 이성(二聖)의 한 축으로서 혁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의 독자적인 탄생담이 실려 있으며, 나아가 혁거세와 함께 이성(二聖)으로 지칭되었다는 것은 알영이 혁거세 못지않는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보

13)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2 始祖赫居世居西千十七年條

1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赫居世三十八年條

1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元年條

16) 『三國遺事』 卷1, 紀異2 赫居世王條

17) 『三國遺事』 卷5, 感通7 仙桃聖母隨喜佛事條

여준다.

한편 신라에서는 시조부부와 육촌장의 신이한 탄생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 외에도 시조모가 건국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다른 계통의 전승도 있다.

1-3) (선도산성모) 처음 진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으니 필경 혁거세와 알영의 두 성군(聖君)을 낳았을 것이다. 때문에 계룡·계림·백마 등으로 일컬으니 이는 닭이 서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¹⁸⁾

1-4) 혹은 불구내왕이라고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림을 말하였다. 해설하는 이는 말하기를, “이는 서술성모가 낳은 바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이 선도성모를 찬양하여 ‘어진 이를 낳아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 있음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⁹⁾

위의 자료에는 신라의 건국시조가 선도성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서술성모 혹은 선도성모로 표현된 존재는 신라의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인 것이다. 그런데 ‘동국의 첫 임금이 된 성자’를 낳았다고 하는 시조모가 낳은 것은 혁거세 뿐만이 아니었다. 1-3)에는 시조모가 혁거세와 알영 두 성스러운 임금을 낳았다고 했다. 또한 1-4)에는 ‘어진 이를 낳아 나라를 세웠다’는 서술성모 혹은 선도성모라고도 하는 시조모는 알영의 탄생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조부부인 혁거세와 알영 모두 시조모가 낳은 셈이 된다. 1-1)과 1-2)에서 부부관계로 그려졌던 두 사람이 1-3)과 1-4)에서는 남매관계가 된다. 건국신화에서 부부나 형제로 그려진 관계들이 실제적인 혈연이

18) 『三國遺事』 卷5, 感通7 仙桃聖母隨喜佛事條

19)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나 혼인이 아니라 건국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집단 간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진 이를 낳아 나라를 세웠다’는 시조모가 혁거세 뿐 아니라 알영을 함께 낳은 것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알영 역시 혁거세와 같은 나라의 시조로서 여겨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1-4)에서는 알영의 탄생을 시조모의 현신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시조모 전승에서는 알영이 오히려 혁거세보다 구체적이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한다.

뿐만 아니라 다음 기록은 신라의 국명 유래를 알영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1-5) 나라 이름을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 [지금 풍속에 京을 서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라 하고, 혹은 사라(斯羅)·사로(斯盧)라고도 했다. 처음에 왕이 계정(鷄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혹 나라 이름을 계림국(鷄林國)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계룡(鷄龍)이 상서(祥瑞)를 나타냈기 때문이다.²⁰⁾

서라벌·서벌·사라·사로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라는 또한 계림국이라고도 불리웠는데, 그 유래를 왕이 계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며 계룡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계림이 신라의 국명처럼 불리웠던 정황은 사료에서 다양하게 찾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림의 유래를 ‘알영’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계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유래의 주인공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의 사료를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알영은 신라에서 국명의 유래와 관련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왕’이 된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표현이 ‘후(后)’의 오자이거나, ‘왕’자 밑에 ‘후’자가 탈락된 것으로 추정해도 있었다.²¹⁾ 그렇지만 이는 알영을 시조 혁거세의 배우자로서만 이

20)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21) 李丙燾 譯註, 1984 『三國遺事』 修正版, 廣書出版社, 196쪽

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신라에서는 알영을 혁거세와 함께 ‘이성(二聖)’으로 지칭하며 존송하였다. 시조묘 전승에서는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도 시조묘가 함께 넣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알영과 혁거세와의 위상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3)에서는 알영을 혁거세와 함께 성군(聖君), 성스러운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알영이 혁거세와 같은 ‘왕’으로도 인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본다면 1-5)에서 ‘왕’이라는 표현은 ‘후(后)’의 오자로 보기보다는 알영이 ‘왕’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즉 신라의 국명 유래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왕’이라는 글자를 ‘후’의 잘못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알영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왕후라는 글자로 바꾸어 이해할 경우, 왕후인 알영이 신라의 국명을 좌우할 정도의 권능을 가진 중요한 존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계림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는 김씨의 시조로 알려진 알지의 탄생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 기록도 있지만,²²⁾ 위의 『삼국유사』 찬자는 시조비인 알영의 탄생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했다. 국명이 알영과 관련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알영이 신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시조로 알려져 있는 혁거세의 존재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면서 알영이 신라사에서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거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신라의 공식화된 건국신화에서 시조비로 그려진 알영은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알영이 혁거세와 함께 이성(二聖)의 한축으로 여기고 존송되었다는 것은 알영의 비중이 혁거세와 같음을 보여준다. 시조묘가 시조를 넣었다는 전승에서는 혁거세 뿐 아니라 알영 역시 시조묘의 소생으

22)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九年條

로 그려져 있어, 알영 역시 혁거세와 같이 시조로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신라 국명 유래가 알영의 탄생담과 관련하여 설명될 정도이다. 이는 알영이 신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는 고구려·백제와 달리 토착세력에 의한 추대형 신화의 모습을 띠고 있다. 혁거세 출현에 앞서 조선유민이 내려와 6촌을 형성하였으며, 6촌장에 의해 혁거세가 추대되어 신라가 성립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혁거세로 대표되는 세력이 지배세력으로 대두되기 전에, 경주지역에 권력을 장악한 선주 토착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선주해 있던 토착세력들이 나라의 시조로 숭상했던 대상이 바로 알영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다가 후에 새로운 유이민 세력이 경주지역에 유입되고 하나의 통합된 정치집단이 형성되면서 오늘날 알려진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건국신화로 재정립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 여성 시조의 사례는 알영 역시 시조로서 숭상되었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6) 김씨덕 재매부인(財買夫人)이 죽으니 청연(靑淵)에 장사지내고, 이로 인하여 재매곡이라 불렀다. 해마다 봄철에는 일종(一宗)의 사녀(士女)들이 골짜기의 남쪽 사내에 모여 크게 잔치했는데, 이때엔 온갖 꽃이 피고 송화(松花)가 풀안 숲에 가득했다. 골짜기 어귀에 암자를 지어 송화방이라 불렀으며 원찰로 삼았다.²³⁾

위의 자료는 김유신이 속한 가야 김씨계의 한 지파에서 재매부인을 시조로서 추앙하고 있는 모습이다.²⁴⁾ 일종(一宗)의 사녀(士女)들은 재매부인

23) 『三國遺事』 卷1, 紀異2 金庚信條

24) 『三國遺事』 卷1 紀異2 辰韓條에는 신라의 金入宅 중에 財買井宅을 기록하면서 庚信公祖宗이라고 세주를 달아놓았다. 재매정택이 김유신 집안과 관계있으며 재매부

의 후손으로 여겨지는데, 모여서 잔치를 했다는 것은 재매부인에 대한 일종의 제의적이 성격을 의미할 것이다.²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후손들이 재매부인을 기념하여 정기적인 회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매부인이 김유신이 속한 가야계 김씨 중의 한 지파에서 시조로 존숭되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재매부인을 기념하는 제사에 여성들의 참여를 특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2. 오릉과 알영의 관계

알영이 신라의 건국시조로 인식되었다면, 시조를 제사지냈다는 시조묘의 주신(主神) 역시 알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남해왕대 시조묘 건립이 실려 있으며,²⁶⁾ 신라본기에는 상고기 왕들이 즉위 후나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 시조묘에 가서 친히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시조묘가 건립되어 국가 제사로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건국 시조를 제사지냈던 시조묘가 어디일까? 시조묘(始祖廟)는 시조를 모신 묘(廟)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조묘에 대해서 능=묘라는 관점에서 시조릉이라는 해석과,²⁷⁾ 왕릉 자체가 아니라 왕릉 주변에 세운 특정한 건축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⁸⁾ 그렇지만 시조묘를 건축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그 위치는 시조릉 주변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시조묘는 시

인은 그 택호임을 알 수 있다.

25) 盧明鎬, 1988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1쪽

26)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條

27) 나희라, 2003 앞의 책, 81~82쪽

28) 김창석, 2007 앞의 논문, 199쪽

조릉으로 알려진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음 자료는 신라에서 시조릉에 대한 전승을 보여준다.

2-1) 61년 봄 3월에 거서간이 죽었다. 사릉(蛇陵)에 장사지냈는데, 담암사(曇巖寺) 북쪽에 있다.²⁹⁾

2-2)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7일 후에 그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는데, 왕후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나라 사람들이 합하여 장사지내려고 하니 큰 뱀이 쫓아와서 방해하였다. 머리와 사지를 각각 장사지내 오릉(五陵)이 되었다. 또한 사릉(蛇陵)이라고도 하는데, 담암사(曇巖寺) 북쪽 능이 이것이다.³⁰⁾

2-1)을 통해 시조를 사릉에 장사지냈으며, 그 위치는 담암사 북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는 내용이 보다 자세한데, 시조릉의 위치가 담암사 북쪽에 있다는 기술은 일치하고 있다. 그 외에는 시조 왕 뿐만이 아니라 왕후의 죽음을 함께 기록하였다. 또한 시조릉이 사릉 외에도 오릉이라고도 불리웠다는 것을 이름에 얽힌 유래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신라에서 시조가 묻혔던 것으로 인식한 사릉, 혹은 오릉으로 불리웠던 시조릉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릉은 신라시대부터 현존해 있었으며, 국가적인 제사의 대상이었다.

2-3) 제 13대 미추이사금은 김알지의 7세손이다. …중략…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다라면 김유신 공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이니, 나라를 진호(鎮護)함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사람들이 그 덕을 생각해서 삼산(三山)과 함께 제사지내어 폐지하지 않고서, 서열을 오릉(五陵)의 위에 두어 대묘(大廟)라고 불렀다고 한다.³¹⁾

2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千六十一年條

30)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위 사료는 김씨로 첫 왕인 미추왕의 능을 대묘라고 불렀고 그 서열이 오릉보다 높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통일기인 37대 해공왕대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시기에는 대묘로 불린 미추왕릉보다 위계가 낮았지만 오릉이는 장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오릉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삼국사기』에는 담암사, 『삼국유사』에는 담엄사로 되어 있는 절이다. 이 외에 『삼국유사』에 신라 육촌을 설명하면서 ‘천양산촌의 남쪽이 지금의 담엄사라는 기록과,³²⁾ 전불시대 칠처가람지 중의 하나로 ‘서청전(婿請田)이 지금의 담엄사라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담암(엄)사의 위치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시조릉 추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는 ‘오릉’으로 불리는 장소가 있으며, 특히 시조가 묻힌 시조릉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조가 묻힌 ‘오릉’으로 불리는 장소가 과연 시조묘와 관련된 ‘시조릉’으로 볼 수 있을까? 문헌기록으로는 더 이상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추정이 어렵다. 그런데 고고자료를 통해서 현재의 ‘오릉’이, 신라시대에 ‘시조릉’으로 인식했던 그 장소였을 가능성이 찾아진다.

현재 ‘오릉’으로 불리는 곳에는 오릉을 제사지내는 승덕전(崇德殿)이라는 건물이 있다. 이 승덕전의 알영정 서편 잔디밭에 당간지주 2점이 상면만 노출된 채 묻혀 있다.³³⁾ 원래는 오릉 경역의 남쪽 모서리에 당간지주가 있어 승덕전으로 들어오는 홍살문의 양쪽 기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차량에 의해서 절단되어 오릉 동남쪽 모서리에 누워 있던 것을 1970년대에 현 위치에 매몰하여 그 자취를 없앴다고 한다.³⁴⁾ 이 당간지주의 제작 연대는

31) 『三國遺事』 卷1, 紀異2 未鄒王竹葉軍條

32)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3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慶州 五陵 北便 橋梁址』 發掘調查報告書, 79쪽

34) 이근직 엮음, 1988 『경주의 문화유산』 2, 25쪽

7세기 말엽경이며,³⁵⁾ 담암사의 당간지주로 추정하고 있다.³⁶⁾

한편 1972년에는 신라오릉정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 현재의 오릉 재실 부근에서 수십의 신라시대 건물에 사용했던 석물이 발견되었다.³⁷⁾ 현재 오릉 경역내 능의 북편과 남서편에는 초석, 탑재 등 20여 점이 놓여 있다. 이들은 주변에 있던 석재들을 인위적으로 모아 놓은 것으로 초석 중에는 방형초석과 원형 초석이 있고 주좌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이 있으며 부연이 있는 기단갑석도 1점 있다.³⁸⁾ 송덕전 일대와 오릉주변에 남아 있는 초석들과 당간기주,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 정원에 진열되어 있는 팔부중상 등을 통해 오릉 근처에 절터가 있었으며, 송덕전이 건립된 자리가 담암사 옛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⁹⁾

현재의 오릉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이 담암사와 관련된 유물로, 근처의 사찰터를 담암사터로 이해한다면, 현재 오릉으로 불리는 장소는 신라에서 시조릉으로 인식했던 담암사 북쪽에 위치했던 그 오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오릉이 신라에서 시조릉이라고 인식했던 그 오릉일 것이라는 추정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된 적은 없다. 또한 오릉 위치 추정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담암사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오릉이 신라시대에 시조릉으로 인식했던 그 오릉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릉은 다섯 개의 능이라는 의미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오릉이 시조를 비롯하여 5명의 왕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삼국유사』 기이편에

35) 朴洪國, 1985 「慶州地方 당간지주의 研究」 『慶州史學』 4, 10쪽

3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위의 보고서, 79쪽

37) 姜仁求, 1989 『新羅五陵測量調査報告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8~19쪽

3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위의 보고서, 78~79쪽

39) 姜仁求, 1989 위의 보고서, 18~19쪽

서는 시조 혁거세의 유체가 다섯 개로 나뉘어 묻힌 것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이들 기록 모두 오릉을 시조가 묻힌 장소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시조묘를 시조와 관련된 장소, 시조가 묻힌 곳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오릉이 시조묘와 관련된 장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의 2-2)에서 오릉의 유래와 관련된 혁거세의 죽음과 장례에 관련된 전승을 검토해보면 어딘가 어색하며 복합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다는 느낌을 준다. 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강신화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혁거세는 죽어서는 하늘로 승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승천한 혁거세의 몸은 다시 땅에 떨어져 흩어졌으며 이 다섯 개의 유체를 각기 나뉘어 묻었다고 한다.

이러한 오릉에 묻힌 시조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설화는 절단된 신군의 시체가 풍양(豊穰)과 풍작(豊作)을 가져온다고 믿는 곡물재배의 신화와 제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혁거세의 농업신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⁴⁰⁾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가 죽어서 다시 승천했다는 것은 천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혁거세가 죽어서 승천했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몸이 흩어져 다섯 개의 유체가 나뉘어 묻혔다는 설화에는 천신과 농업신, 즉 지신적인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농업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영이다. 민간신앙에서 용(龍)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水神)으로 신앙된다. 알영은 알영정 가에서 계룡의 몸을 빌어 태어났다는 탄생담을 가지고 있다. 용이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 나타났다는 것 역시, 물과 관련된 용의 수신적인 속성과 관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신앙된 용은 또한 농업 생산주관자로서의 신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⁴¹⁾ 이는 알영이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화백의 딸인 유화와 같이 지모신의 성격을 가졌음을

40) 黃敗江, 1972 「朴赫居世神話論考」 『韓國敘事文學研究』, 단국대 출판부, 160쪽

41) 나희라, 2003 앞의 책, 121쪽

보여준다.⁴²⁾ 물을 관장하는 수신으로서 용으로 상징되는 알영의 농업신적인 모습은, 농상을 권장했다는 알영의 활동과도 겹쳐진다.⁴³⁾

신라의 건국신화는 천신족과 지신족이 결합하여 국가를 건설하면서 구성되었으며, 혁거세는 천신족을 알영은 지신족 각기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⁴⁾ 오룡의 유래로 설명된 죽음과 장례에 관련된 이 전승이 농업신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 설화의 주인공은 농업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신계인 알영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2)에서는 혁거세의 사망에 알영의 죽음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는 원래 시조가 묻혔다고 하는 사릉, 혹은 오룡의 주인공은 알영이었는데, 후대 혁거세를 중심으로 건국신화로 재정립되면서 혁거세가 중심으로 알영의 죽음은 여기에 부회되어 설명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현재의 오룡으로 불리는 장소 역시 알영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알영은 알영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름을 알영이라고 했다고 했다. 현재 경주에는 알영정으로 전해지는 우물이 있는데, 이 알영정은 오룡의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오룡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에는 알영정 외에 이렇다 할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다.⁴⁵⁾ 이는 오룡에서 알영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영과 상관관계가 있는 알영정이 오룡의 권역 내에 있다는 것은, 오룡이 알영과 관련된 장소에 조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조릉인 오룡은 사릉으로도 불리웠는데, 무덤의 명칭에서도 알영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사릉(蛇陵)은 뱀 무덤이라는 뜻이다. 즉 시조릉이 뱀과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사릉이라는 명칭은 시조

42) 金哲俊, 1990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 『韓國古代社會研究』, 59쪽

43) 金宅圭, 1985 『韓國農耕歲時的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79-82쪽

44) 김두진, 1999 앞의 책, 322쪽

45) 姜仁求, 1989 앞의 보고서, 21쪽

의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져서 나라 사람들이 합하여 장사지내려고 했는데 큰 뱀이 쫓아와서 방해했기 때문에 유래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뱀무덤을 뜻한 사릉이라는 용어 역시 알영과 관련이 있다. 알영은 용이 나타나 죽고 그 배를 갈라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알영의 탄생담은 재생과 다산, 풍요를 기원하는 원시적 뱀 숭배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다.⁴⁶⁾ 뱀은 용과 혼용되기도 한다. 용이 되려다 못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뱀을 이무기라고 표현하는 데에서도 뱀과 용의 상관성을 읽을 수 있다. 용과 뱀에 대한 신성한 관념을 합쳐서 용사(龍蛇) 신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용과 관련을 가지는 것 역시 알영이다. 알영의 출생에는 계룡(鷄龍) 혹은 용이 등장한다. 알영은 계룡의 왼쪽 겨드랑에서 태어났다고도 하며, 용이 나타나서 죽자 그 배를 가르고 알영을 얻었다고도 한다. 이는 알영이 용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알영이 용에서 태어났다면 알영이 곧 용인 셈이다.

결국 사릉(蛇陵)이라는 이름은 용사(龍蛇)로 관념되기도 하는 알영의 무덤을 의미하는 용어였다고 할 수 있다. 시조릉이라고 전해지는 오룡이 알영의 탄생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알영정이 있는 장소에 조영되었으며, 또한 뱀무덤이라는 의미의 사릉 역시 알영을 가리키는 용과 상통된다는 점에서 오룡과 알영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조가 묻힌 것으로 인식된 오룡의 주인공 역시 알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조묘(廟) 시조가 묻혔다고 인식한 장소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조묘의 주인공은 오룡과 여러 가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알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조묘의 주인공이 알영일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 시조묘 건립 기사도 주목하고자 한다.

46) 김두진, 1994 「신라 김알지 신화의 형성과 신궁」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 일조각, 67쪽

2-4) 제2대 남해왕3년 봄에 시조 혁거세묘를 처음 세우고 사시로 제사를 지냈다. 친누이(親妹) 아로(阿老)로 하여금 제사를 主祭하게 하였다.⁴⁷⁾

2대 남해차차웅대 시조묘를 세우고, 그 제사를 친누이(親妹)인 아로(阿老)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아로의 사례를 통해 초기의 왕실 여성, 특히 왕비(왕매)는 왕과 함께 왕실이 맡았던 종교적 임무를 수행해 내는 종교 전문가로서 직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⁴⁸⁾

그런데 왜 시조묘 제사를 친누이인 아로가 담당하게 되었을까? 아로로 하여금 시조묘 제사를 담당하게 한 남해왕 역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차웅으로 불려진 임금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왕은 정치를 담당하고 아로는 제사를 책임진 존재로, 제정(祭政)의 분리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었다.⁴⁹⁾ 그와 달리 왕은 무적 사제로서 사제왕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의 최고제권을 장악했으며, 아로와 같은 왕실 여성들은 사제권의 일부를 분장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⁵⁰⁾

그런데 여기서는 시조묘 제사를 담당한 아로가 ‘여성’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보통 제사를 지내는 대상과 그 제사의 주체자는 일치시켜 이해하고 있다. 제의를 올리는 사제에게 그 대상신이 강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⁵¹⁾ 신라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대상신이 종종 현신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김유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나례, 혈례, 골화의 산신이 나타나 구해주었다.⁵²⁾ 또한 험강왕대에는 남산신과 북악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47)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條

48) 나희라, 2003 앞의 책, 127쪽

49) 李賢惠, 1976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 『歷史學報』 69, 25쪽;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일조각, 72쪽

50) 나희라, 2003 앞의 책, 120쪽

51) 나희라, 2003 앞의 책, 118쪽

52) 『三國遺事』 卷1, 紀異2 金庚信條

추기도 했다.⁵³⁾ 이때 나타난 산신은 실제 인물로 산신을 제사지내는 사제였으며, 사제에게 신이 나타나 신의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과 그 제사의 주재자를 일치시켜 이해한다면, 시조묘 제사 역시 제사의 대상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일치되는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조묘 제사를 여성인 ‘아로’가 담당했던 것은, 시조묘 제사의 대상이 아로와 같은 ‘여성’으로 인식했던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증거가 제시되어야겠지만, 여기서는 시조묘 제사의 대상이 알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시조묘 제사를 주관했던 아로의 성별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3. 시조묘 제사의 변화와 신궁

지금까지 신라에서 시조로 여겨졌던 인물은 혁거세가 아니라 시조비로 표현된 알영으로, 시조묘 모셔진 시조는 알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오늘날 전하는 바와 같은 혁거세를 중심으로 알영과 6촌장을 포함하는 형태의 건국신화는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⁵⁴⁾ 적어도 중고기 진흥왕대 『국사(國史)』를 편찬할 당시에는 기본 골격이 갖추어졌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⁵⁵⁾ 이전에 각 혈연계보로 연결된 족단별로 내려오던 다양한 시조설화를 토대로 후대 재구성되었을 것이다.

53) 『三國遺事』 卷1, 紀異2 處容朗望海寺條

54) 혁거세를 주인공으로 신라의 건국신화가 재구성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사금기(나희라, 2003 앞의 책, 94쪽), 신라 하대(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証』 上, 塙書房, 415쪽)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건국신화가 갖추어지는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55) 奎德在,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5쪽

시조묘의 주인공인 알영 역시 처음에는 특정 단위정치체에서 시조로 받아들여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알영이 사랑리의 알영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⁵⁶⁾ 사랑은 후대 신라 6부 가운데 하나로, 사로국 단계에서 돌산고허촌과 연관 관계가 설명되고 있다. 이를 참조한다면 알영은 돌산고허촌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돌산고허촌의 시조인 알영이 신라의 국가적인 시조로 숭상되었다는 것은, 사로국단계에서 알영이 속한 돌산고허촌이 경주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후 일정시기에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건국신화로 재구성되고 알영은 시조비로 그 위상이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찬강한 혁거세를 돌산고허촌장이 발견하고 양육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⁵⁷⁾ 이는 사로국 단계의 돌산고허촌의 위상과 함께, 이후 경주에서의 세력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시조묘는 설립된 이래 신라에서 중요한 국가 제사로 여겨졌다. 역대 신왕들은 즉위 후 시조묘에 와서 친히 제사를 드렸으며,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에도 시조묘 제사를 드렸다. 새로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시조왕에게 제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시조왕에서 비롯된 정통의 왕이며, 또 시조왕이 지닌 신력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천명했다.⁵⁸⁾ 이사금 시기에 중요한 국가 제사였던 시조묘는 연맹체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단결을 도모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⁵⁹⁾ 이와 같은 시조묘 제사의 위상은 석씨로 표현되는 탈해계 왕들이 즉위해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김씨계 왕들이 등장하면서 시조묘 제사와 관련된 미묘한 변화가

56) 『三國遺事』 卷1, 紀異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5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卽位條

58) 나희라, 2003 앞의 책, 95쪽

59) 채미하, 2008 앞의 책, 74쪽

감지된다. 그 변화는 김씨계 첫 왕이었던 미추왕에게서부터 나타난다. 미추왕 역시 즉위 다음해에 시조묘에 가서 친히 제사를 드렸다.⁶⁰⁾ 또한 즉위 20년에도 묘(廟)에 배알했다고 하는데,⁶¹⁾ 『삼국사절요』에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조묘(祖廟)로 표현하고 있다.⁶²⁾ 역시 시조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시조묘라고 하면 왕과의 혈연적 계보 관념이 보인다. 그러나 국조묘라는 것은 국가의 조상묘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 김씨계로 첫 왕이 되었던 미추이사금의 시조묘 제사는 시조의 후예라는 혈연적 의미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시조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추이사금에서 시작된 김씨계의 왕위 계승은 나물마립간 이후 독점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제사 사실만 기록된 시조묘가 김씨 왕위 독점 시대를 열었던 나물마립간대에는 몇가지 다른 특기를 보이고 있다.

3-1) 봄 2월에 몸소 시조묘에 제사지냈다. 자춧빛구름이 묘 위에 등글게 서렸고, 신작(神雀)이 묘정(廟庭)에 모여들었다.⁶³⁾

3-2) 여름 4월에 시조묘 뜰에 있는 나뭇가지가 다른 나뭇가지와 이어져 하나가 되었다.⁶⁴⁾

신라 왕들은 시조묘 제사를 통해 즉위의 정통성과 앞으로 펼칠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시조왕의 신성과 그를 통해 연결되는 지고신으로부터 부여,

60)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二年條

61)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二十年條

62) 『三國史節要』 卷5, 辛丑年條

6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麻立干三年條

6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麻立干七年條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물마립간대는 정치적 변화가 극심한 시대였다. 진(秦)의 부견(符堅)이 ‘해동의 일이 옛날 같이 않으니 어찌된 것인가?’라고 물으니, 사신으로 간 위두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혁되고 이름이 바뀌었으니 지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변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물마립간으로서의 시조묘에 모셔진 ‘시조’의 혈연적 후예는 아니지만, 시조로부터 인정받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3-1)에서 내물왕 즉위 의례인 시조묘 제사에서 자줏빛구름이 서리고 신통스런 새가 모였다는 것은 시조가 상서로운 징조를 통해 나물마립간의 즉위를 인정하였다는 상징이었다. 나물마립간이 시조와 계보관계를 가진 후예는 아니지만, 시조로부터의 정통성을 계승한 시조가 인정한 왕이라는 것이다. 3-2)에서 시조묘 뜰에 있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이어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물마립간이 ‘시조’와 계보관계가 없는 다른 집단이지만, ‘시조’와 관련성이 있는 집단과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씨 왕계이지만 나물마립간 역시 시조묘 제사를 통해 신라 왕통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다음 눌지마립간은 내물마립간의 아들로 석씨 세력을 철저히 누르면서 즉위하여 명실상부 김씨 왕위 계승을 확립하였다. 그런데 김씨 왕계의 부자상속을 확립했던 눌지마립간대 시조묘에 획기적인 변화가 보인다.

3-3) 봄정월 큰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2월에 역대 원릉을 수습했다. 여름 4월에 시조묘에 제사지냈다.⁶⁵⁾

2월에 역대 원릉 수습이 있었고, 그 해 4월에 시조묘 제사가 나오고 있다. 역대라고 했지만 수습의 주요 대상은 시조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

6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十九年條

서 '수즙'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수즙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기록은 고고학계에서도 주목하여, 원래 조그맣게 축조되어 있었거나 퇴락한 역대의 원릉을 대형 고총으로 확대 개축한 것으로 해석하거나,⁶⁶⁾ 원래 신라에서 고구려식 적석총이 조영되다가 이 시기 봉토를 덧입혀 적석목곽분으로 변화된 기록으로 보기도 하였다.⁶⁷⁾ 또한 역대왕릉에 딸린 건물들을 보수정화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었다.⁶⁸⁾

여기서는 위의 기록을 시조묘로 추정했던 오릉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오릉은 5개의 무덤이 조영된 능원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오릉이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능원형태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릉은 아직까지 정식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정황상 오릉의 묘제는 적석목곽분일 가능성이 있다.

적석목곽분은 독특한 구조로 인해 외형에서 선행묘제인 토광묘나 뒤에 조영되었던 석실분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적석목곽분은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적석목곽분은 목곽을 만들어 시체를 넣은 관을 넣고, 그 위에 냇돌을 쌓고, 다시 봉토를 덮은 형태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목곽이 썩으면서 그 위에 쌓은 냇돌과 봉토가 내려앉게 된다. 그러므로 후대 손질을 가하지 않는 적석목곽분은 대부분 봉분의 가운데 부분이 꺼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적석목곽분은 그 독특한 구조로 추가장을 할 수가 없다. 합장을 하려면 봉분을 서로 붙여 합장관계를 나타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적석목곽분에서는 원형 뿐만이 아니라 표주박과 같은 표형(瓢形)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66) 崔秉鉉, 1991 「신라의 성장과 신라 고분문화의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4, 156쪽 ; 1992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1992, 380~381쪽

67) 姜仁求, 1981 「新羅 積石木槨墳의 구조와 계통」 『韓國史論』 7, 51~52쪽

68) 채미하, 2008 앞의 책, 77쪽

그런데 오릉의 입지를 살펴보면 남천 남쪽의 평지에 조영되어 있다. 또한 봉분을 살펴보면 부분이 약간 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이 약 7.2m가 되는 오릉 2호분은 표형분의 형태이다. 이는 시조릉으로 전해지는 오릉의 묘제가 위치와 봉분의 구조로 볼 때 적석목곽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⁶⁹⁾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마립간’으로 불리는 시기에 흥성한 묘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적석목곽분을 마립간시기의 묘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⁷⁰⁾

현재의 오릉이 적석목곽분으로 만들어졌다면, 현재의 모습을 가진 오릉은 ‘마립간’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릉이 신라시대에도 시조가 묻힌 무덤으로 인식되었던 그 오릉이면서, 현재와 같은 적석목곽분의 묘제라는 것을 일치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석목곽분이 조영되었던 시조릉에 대한 변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놀지왕대 역대 원릉을 수습했다는 기사를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놀지왕대는 적석목곽분 조영이 성행했던 마립간기에 해당하므로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지내던 ‘시조묘’는 놀지왕대에 김씨 계의 묘제인 적석목곽분으로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시조묘가 원릉의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전해지는 것과 같은 적석목곽분의 원릉 형태를 가진 오릉은 마립간대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조묘를 새롭게 개축한 것은 놀지왕대 왕통의 계보 정리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역대 왕통계보를 정리함으로써 왕통의 연속성 속에 현재

69) 姜仁求, 1989 앞의 보고서, 도면5 五陵墳丘配置圖, 37쪽

70) 崔秉鉉, 1992 앞의 책, 261쪽

왕의 위치가 확인되고, 나아가 앞으로 왕통의 연속성을 보증해야 할 존재로서 현왕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게 된다.⁷¹⁾ 김씨 왕들이 전 왕대와 다른 계통에서 왕위에 올랐더라도, 선대 왕들의 왕통 계보를 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로 시조묘를 자신들의 묘제인 적석목곽분으로 재조영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묘제인 적석목곽분으로 시조묘를 재조영하면서, ‘시조’로부터 시작된 신라 왕위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도 연결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김씨 왕계가 왕위를 독점했던 마립간기에 보이는 시조묘 제사에 대한 이와 같은 변화는 신궁(神宮) 설치로 귀결되었다. 신라본기에서는 소지왕 9년에,⁷²⁾ 제사지에서는 지증왕대라고 하여⁷³⁾ 각각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어쨌든 신궁이 설립되어 이후 시조묘의 위상을 대신하게 되었다.⁷⁴⁾ 신라본기에서는 ‘신궁을 나을에 설치했는데, 나을은 시조가 처음 난 곳’이라고 했으며, 제사지에서도 ‘시조가 탄강한 나을에 신궁을 창립하고 제사지냈다’고 하였다.

신궁 제사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학계에 이견이 큰 상황인데, 두 사료에서 신궁이 설치한 장소로 언급한 나을은 혁거세 탄강지로 알려진 나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궁은 혁거세와 관련된 장소에 건립되었으며, 신궁 제사의 주신은 혁거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이는 신라에서 이사금 시기 ‘알영’을 시조로 제사지냈던 체계

71) 나희라, 2003 앞의 책, 134쪽

7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條

73)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條

74) 이에 대해선 소지왕대에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가 지증왕대부터 제도화 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최광식, 1983 「신라의 신궁설치에 대한 신고찰」 『한국사연구』 43 ;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67쪽).

75) 신궁 제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혁거세 신화의 형성 시기와 배경문제와 함께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마립간기 김씨 왕들은 시조묘에서 알영에 대한 제사가 전통적으로 행해지긴 하였지만, 시조묘 제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결국 '신궁'을 세워 시조묘를 대신하게 하였다.

마립간기 이후 신라 왕위를 계승하게 된 김씨 왕들로서는 자신들과 계보관계가 다른 '알영'을 시조로 존송하는 기존의 시조묘 제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알영을 대상으로 하는 시조묘 제사는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기 전의 사로국 시기의 제사체제이다. 부족신에서 시작된 시조묘 제사가 국가 전체를 통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왕권의 성장과 함께 이를 통괄할 수 있는 관념체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은 시조묘제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신앙의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새로운 건국신화가 재정립되었으며, 이를 제사지내는 신궁을 새로 건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던 왕실 여성의 호칭인 'ar'이 놀지마립간을 마지막으로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마립간기 시조묘 제사에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시조묘 제사의 주 대상이 '혁거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보았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혁거세를 시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조비인 알영 역시 혁거세 못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조묘와 관련된 전승에서는 알영이 혁거세와 같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알영은 신라의 국명 유래로도 설명되고 있

는데, 이는 알영이 신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시조로 존송했던 대상이 알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특히 여성인 ‘아로’가 시조묘 제사를 주재했다는 것 역시, 시조묘 제사의 대상이 여성인 ‘알영’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알영을 시조로 인식했다면, 시조를 모신 시조묘의 제사 대상 역시 알영이 될 것이다. 시조묘는 시조가 묻힌 무덤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신라의 시조릉으로 전승되고 있는 오릉이 시조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오릉 권역내에 알영과 관련된 알영정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오릉은 사릉이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명칭이나 유래가 모두 알영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조묘가 시조가 묻혔다고 인식했던 장소와 관련이 있으며, 오릉이 시조묘와 관련된 장소로 이해한다면 시조묘의 주인공은 오릉과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성을 보이는 알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알영을 신라의 시조로 하는 시조묘 제사는 이사금 시기에 중요한 국가 제사였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했거나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조묘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김씨 왕들이 대두되면서 시조묘 제사에 변화가 생겼다. 미추이사금을 시작으로 나물마립간 이후 신라의 왕위를 독점했던 김씨 왕계의 왕들은 시조묘 제사를 국가의 시조에 대한 제사로 인정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시조’와는 다르다는 계보 의식이 있었다.

마립간기 이후 신라 왕위를 계승하게 된 김씨 왕들로서는 자신들과 계보가 다르다고 인식했던 ‘알영’을 시조로 존송하는 기존의 시조묘 제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알영을 대상으로 하는 시조묘 제사는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기 전의 사로국 시기의 제사체제이다. 부족신에서 시작된 시조묘 제사가 국가 전체를 통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엔 없었다. 마립간기 이후 시조묘 제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과정에서 범국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신궁’이 탄생했던 것으로 보았다.

투고일자 : 2010. 5. 3 심사일자 : 2010. 5. 4 게재확정일자 : 2010. 5. 12
주제어 : 신라, 알영, 건국시조, 오릉, 시조묘, 신궁

〈참고문헌〉

- 姜仁求, 1989 『新羅五陵測量調查報告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慶州 五陵 北便 橋梁址』發掘調查報告書
 김두진, 1999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金宅圭, 1985 『韓國農耕歲時的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李丙燾 譯註, 1984 『三國遺事』 修正版, 廣曹出版社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일조각
 이지영, 2000 『고대 건국설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全德在,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최광식, 1994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黃敗江, 1972 『韓國敘事文學研究』, 단국대 출판부
-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_____, 1973 『古代祭政と穀靈信仰』, 平凡社
- 姜仁求, 1981 「新羅 積石木槨墳의 구조와 계통」 『韓國史論』 7
 姜鍾薰, 1994 「神宮의 設置를 통해 본 麻立干時期的 新羅」, 『韓國古代史論叢』 6
 김두진, 1994 「신라 김알지 신화의 형성과 신궁」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
 총』(상), 일조각
 金昌錫, 2007 「신라 始祖廟의 성립과 그 祭祀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26
 金哲堧, 1990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 『韓國古代社會研究』
 나희라, 1990 「新羅初期 王의 性格과 祭祀」 『韓國史論』 23
 盧明鎬, 1988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文暉鉉, 1972, 「新羅 建國 說話의 研究」 『大丘史學』 4
 朴承範, 1997 「新羅의 始祖廟 儀禮」 『史學志』 30
 朴洪國, 1985 「慶州地方 당간지주의 研究」 『慶州史學』4
 邊太燮, 1964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辛鍾遠, 1984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 李賢惠, 1976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 『歷史學報』 69
- 채미하, 2003 「신라의 시조묘 제사」 『民俗學研究』 12
- 崔光植, 1989 「三國의 始祖廟와 그 祭祀」 『大丘史學』 38
- 崔秉鉉, 1991 「신라의 성장과 신라 고분문화의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4
- 崔在錫, 1986 「新羅의 始祖廟와 神宮의 祭祀-그 政治的·宗政的 意義와 變化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50
- 井上秀雄, 1978 「新羅의 始祖廟」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Abstract>

Significance of Aryeong of Silla's Ancestor Ritual and the Shrine of the Founder of Silla

Kim, Sun-joo

This paper presents the possibility that the first performance of Silla's ancestor ritual at the royal shrine of the founder of Silla (始祖廟) may not have been for Hyeokkeose (赫居世, founding king of Silla). The founding myth of Silla claims Hyeokkeose as the founder, but his wife Aryeong, who is referred to as the founding queen of Silla, is just as important as Hyeokkeose. Aryeong is a symbol representing Silla in that the name "Silla" originated from Aryeong. In particular, the fact that a female named Aro (阿老, sister of King Namhae) led the ritual at the royal shrine of the Silla founder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ancestor rituals at the royal shrine of the founder of Silla were performed for Aryeong.

Furthermore, the royal tomb of the Silla founder, which is also known as the "Five Royal Tombs" (五陵) and the "Tomb of the Snake" (蛇陵), is related to Aryeong: Aryeong's Well mentioned in the myth of Aryeong's birth is located within the compound of the Five Royal Tombs; also related to Aryeong are the name "Tomb of the Snake" and its origin. In Silla, the Five Royal Tombs are perceived as the royal tomb of the Silla founder. And if the royal shrine of the Silla founder is understood to be the grave where the founder of the Silla dynasty is buried, then the only conclusion that can be drawn is would be that the body buried inside the royal shrine of the Silla founder is that of Aryeong who is related to the Five Royal Tombs in various ways.

An important state ritual during the isageum era was the ancestor ritual at the royal shrine of the founder of Silla, with Aryeong as the founder of Silla. But a transformation occurred in the ancestor ritual at the royal shrine of the Silla founder after the Kim clan succeeded to the throne and made the succession hereditary. Silla kings from the Kim clan, including Michu isageum who is the first Silla king from the Kim clan, continued to perform the ancestor ritual at the royal shrine of the Silla founder, but these kings we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y did not come from the lineage of the "founder of the kingdom of Silla." Moreover, there were limitations in controlling the entire

kingdom through an ancestor ritual system that was in the form of ancestor ritual at the royal shrine of the Silla founder prior to Silla's development into an ancient state. In this transformation process, the "shrine of god" (神宮) became the object of faith throughout the kingdom.

Key Words : Silla, Aryeong, founding myth, Five Royal Tombs, shrine of the founder of Silla dynasty, shrine of god.